

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물음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다가 담임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담임선생님과 어머니 중에서 어느 분을 먼저 소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어머니는 담임선생님보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김영관, 서울 구로구 개봉동)

답 담임선생님께 어머니를 먼저 소개하면 됩니다. 자신을 상대방에게 소개할 때와는 달리,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는 누구를 먼저 소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표준 화법 해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1) 친소 관계를 따져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한다.
- (2) 손아랫사람을 손윗사람에게 먼저 소개한다.
- (3)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섞여 있을 때는 (1), (2), (3)의 순서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좀 더 가까운 어머니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하고 어머니를 선생님에게 먼저 소개하고, “어머니,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하면, 소개받은 어머니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의 어미입니다.” 하고, 선생님은 “처음 뵙겠습니다. ○○○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됩니다.

☞ 아무려면 “아무려면 그런 몫쓸 일을 했겠니?”라고 할 때 ‘아무려면’이 맞습니까, ‘아무려면’이 맞습니까?

(이재서, 충남 공주시)

☞ ‘아무려면’이 맞습니다. ‘아무려면’은 주로 의문문에 쓰이는 말로, 있기 어려운 경우나 상태를 가정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아무려면’과 흔히 혼동하게 되는 ‘아무려면’은 ‘아무렵’의 본말로, ‘말할 나위 없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말에 강한 긍정을 보일 때 쓰이는 말입니다.

(1) ㄱ. 아무려면 그 애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ㄴ. 아무려면 굶어 죽기야 하겠습니까?

(2) ㄱ. 아무려면, 자네 부탁인데 들어줘야지

 ㄴ. 아무렵, 그렇고 말고, 네 말이 옳다.

한편,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어떤 상태나 조건에 놓여 있다는 의미로 ‘아무려면’을 쓰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옷이야 아무려면 어때.”라고 할 때의 ‘아무려면’은 ‘아무려하면’이 줄어든 ‘아무려면’을 써야 합니다. 이때 ‘아무려면’은 ‘아무림’으로 더 줄여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어적인 표현일 때나 정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낼 때는 ‘아무려면’을, 당연히 그렇다는 뜻일 때는 ‘아무려면(아무림)’을 씁니다.

◻ **물음** 제가 자주 헛갈리는 표현 중에 “오는 길에 가게에 들렀다.”라고 할 때의 ‘들렀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들렀다’라고 해야 합니까, ‘들렀다’라고 해야 합니까?

(최호웅, 동대문구 이문동)

답 “오는 길에 가게에 들렀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종종 ‘들렀다’를 ‘들렀다’로 잘못 쓰곤 하는데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른다’는 의미일 때는 ‘들르다’가 맞는 말입니다. ‘들리다’는 “무슨 소리가 들린다.”나 “무거운 역기가 들린다.”와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 (1) ㄱ.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
- ㄴ. 오는 길에 가게에 들러서 담배를 샀다.

- (2) ㄱ. 밤새 천둥소리가 들렸다.
- ㄴ. 설마 집채만 한 바위가 들릴라고?

‘들렀다’와 혼동하기 쉬운 다른 예로 ‘들었다’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방이나 집 따위에 있거나 거처를 정해 머무른다는 의미의 ‘들다’에서 온 말로 “밤이 깊어 주막에 들었다.”라고 할 때는 주막에 묵기 위해 든다는 뜻이 되고 “지나는 길에 잠시 주막에 들렀다.”라고 하면 쉬기 위해 잠시 머문다는 뜻이 됩니다.

- | | | |
|---------|---------|-------|
| (3) 들르다 | 들르-+-었다 | → 들렀다 |
| (4) 들리다 | 들리-+-었다 | → 들렸다 |
| (5) 들다 | 들-+-었다 | → 들었다 |

질의하신 문장은 가게에 잠시 들어가 머물면서 물건 등을 사거나 한다는

의미이므로 “오는 길에 가게에 들렀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물음 “많은 돈이라야 그 물건을 살 수 있다.”라고 쓰려고 합니다. ‘돈이라야’의 정확한 표기를 알고 싶습니다. ‘돈이래야’라고 써야 맞는 게 아닌가요?

(이규임, 강남구 논현동)

답 ‘돈이라야’로 쓰는 게 맞습니다.

‘돈이라야’와 ‘돈이래야’는 의미가 다른 말입니다. ‘돈이라야’의 ‘-라야’는 앞 절의 일이 뒤 절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 (1) 신호등이 초록색이라야 건널 수 있다.
- (2) 구두는 신던 것이라야 편하다.

‘돈이래야’의 ‘-래야’는 ‘-라고 해야’의 뜻입니다. 만약 위 문장에 ‘돈이래야’를 쓴다면 “많은 돈이라고 해야 그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뜻이 되어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래야’를 써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3) 돈이래야 이것밖에 없다.
- (4) 집이래야 방 하나에 부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많은 돈이○○ 그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앞 절 ‘많은 돈’이 뒤 절 ‘그 물건을 살 수 있다’의 조건이 되므로 ‘-라야’를 쓰는 게 맞습니다.

물음 냉장고 사용 설명서를 작성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 제품을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접지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접지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감전될 우려가 있으니 매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장에서 ‘매우 주의하다’라는 표현이 약간 어색한 듯한데 잘못된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상훈, ‘스’전자 사용 설명서 작성팀)

답 문의하신 ‘매우 주의하다’라는 표현은 부사의 수식 관계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부사 ‘매우’는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라는 의미로 다음 예문 (1ㄱ, 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예문 (1ㄷ)과 같이 부사를 수식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문 (2)와 같이 부사 ‘매우’가 동사를 수식할 경우에는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 (1) ㄱ. 그는 매우 착하다.
 ㄴ. 그녀는 매우 아름답다.
 ㄷ. 그는 해외로 출장을 매우 자주 다닌다.
- (2) ㄱ. ?철민이는 아침마다 매우 달린다.
 ㄴ. ?그는 동생을 매우 때린다.

따라서 문의하신 ‘매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장은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고쳐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우’, ‘무척’ 등과 같이 정도성을 강조하는 부사들은 대체로 동사를 수식하지 않으므로 수식어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죄인을 매우 처라’와 같은 문장에서 ‘매우 치다’라는 수식 구성이 가능한 것은 기원적으로 ‘뵈+우’에서 온 ‘매우’가 본래 용언의 의미(맹렬하다, 맵다, 사납다 등)를 유지한 채로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물음 횃집 간판이나 음식점 광고 문구에 ‘세꼬시’라고 써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세꼬시’가 고유어인지 궁금합니다.

(김백영, 송파구 석촌동)

답 보통 ‘뼈째 썰어 먹는 회’를 ‘세꼬시’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고유어는 아닌 듯합니다. 일본어 사전에서 ‘세고시’라는 단어가 등재된 것으로 보아 일본어에서 온 말로 보입니다. 일본어 사전에는 ‘세꼬시’를 ‘背越(せごし)’라고 해서 ‘붕어, 은어 등과 같은 작은 물고기를 머리, 내장, 지느러미 등을 제거하고 뼈째 3~5밀리미터 정도의 두께로 자르는 방법’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나고(穴子, あなご)’, ‘마구로(鮪, まぐろ)’, ‘사시미(刺身, さしみ)’ 등과 같은 ‘회’와 관계된 많은 말이 그렇듯이 ‘세꼬시’란 말도 일본어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세꼬시’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음 “들판의 곡식을 거뒀이다.”가 맞습니까? “들판의 곡식을 걸어들이다.”가 맞습니까?

(이용택, 송파구 신천동)

답 “들판의 곡식을 거뒀이다.”가 맞습니다. ‘거뒀

들이다’를 ‘걸어들이다’로 잘못 쓰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뒀

들이다’를 [거뒀드리다]로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거더드리다]로 잘못 발음하기 때문입니다. [거더드리다]라는 잘못된 발음대로 적다 보니 ‘걸어들이다’로 적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두다’의 준말 ‘걷다’에 이끌려서 ‘걷-+-어 들이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두다’의 준말로 ‘걷다’가 널리 쓰이므로 ‘걸어들이다’와 같

은 구성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비슷한 형태의 말인 ‘거뿔들이다’가 있으므로 ‘견어들이다’라는 말을 만들어서 둘 다 쓸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거뿔들이다’만을 인정하고 ‘견어들이다’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입사 면접에서 “저를 뽑아 주신다면 어느 사원보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느’를 쓰는 것이 적절한지, ‘여느’를 쓰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김미향(양천구 신정동)

㉮ ‘어느’와 ‘여느’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어느’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음을 뜻하는 말로, 그 어떤 것이라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모도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는 부모라면 누구든(모두가) 그렇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한편, ‘여느’는 특별하지 않고 예사로움을 뜻하는 말로, 특정한 것과 대조되는 보통의 다수와 관련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여느 사람보다 키가 커 보인다.”라고 하면 그는 키가 그만그만한 보통 사람들보다 유난히 키가 커 보인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여느’와 ‘어느’의 차이는 다음 예문에서 아주 명백히 드러납니다.

- (1) 이 중에 {어느/?여느} 것이나 마음대로 가져라.
- (2) 오늘은 {?어느/여느} 때와 달리 기분이 좋다.

(1)에서는 ‘어느’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여느’를 넣으면 어색한 반면, (2)에서는 반대로 ‘어느’를 넣으면 어색하고 ‘여느’를 넣어야 자연스럽게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와 ‘여느’는 그 쓰임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맥락에 따라서는 쓰임에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맥락에서 그런 것은 아닙

니다. 제시하신 예문과 같이 그 차이가 그리 뚜렷하지 않아 ‘어느’를 넣을지, ‘여느’를 넣을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저를 뽑아 주신다면 {어느/여느} 사원보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3)에서 ‘어느’를 넣는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뜻이 되고, ‘여느’를 넣는 경우에는 남보다 두드러지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뜻이 되므로 그 의미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모두 입사 지원자의 야무진 각오를 나타내는 말로서 어법상으로도 의미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예문의 경우에는 ‘여느’와 ‘어느’ 둘 중 어느 것을 넣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음 “뺨치고 그래?”라고 할 때 ‘뺨치고’가 맞는 말입니까?
(임보선, 경기도 평택시)

답 아닙니다. ‘뺨치고’가 맞습니다. ‘뺨치고’라고 쓰는 일이 적지 않지만 이는 잘못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뺨치다’는 ‘칼 따위로 물건을 얇고 비스듬하게 잘라 낸다’는 뜻으로 “생뺨국에 무를 뺨쳐 넣다.”와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토라지다’의 뜻으로 ‘뺨치다’를 쓰는 것은 ‘뺨치다’와 혼동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뺨치다’는 ‘성이 나서 마음이 토라진다’는 뜻의 말로 “그렇게 조그만 일에 뺨치다니 큰일을 못할 사람일세.”와 같이 쓰입니다.